



감 따먹는 직박구리

3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3리 한 농장 옆 감나무에 노랑게 익은 열매 사이로 직박구리가 감을 따먹고 있다.
 고훈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도내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장 14곳 적자 2000억대

제주경제에 악영향 우려된다

도의회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어제 증인 신문…도 “제도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숙박시설과 골프장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허가한 결과, 적자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기사 2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30일 도내 50만㎡ 이상 17곳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증인 신문을 실시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17곳 사업장 중 14곳에서 적자 누적으로 제주경제를 몰아리움(파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4곳 사업장의 적자(순손실)는 2015년 237억원, 2016년

712억원, 2017년 694억원, 2018년 1949억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는 순손실이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실례로 백통신원리조트의 경우 최근 4년간 매출액 614억원 중 분양 매출이 96%(592억원)를 차지해 분양이 끝나면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홍 의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주요 업종이 숙박과 골프장으로 과잉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도가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과거 IMF처럼 제주 경제에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사업 연장이 들어온 4개 사업장에 대해 1년 이내 자금 조달과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할 계획”이라며 “향후 숙박업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허가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쓴 문제도 제기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은 월 1290t의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 초과 사용한 기간이 12개월이나 된다. 지난해 11월에 지하수 사용량은 2848t으로 허가량의 2배를 넘었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특히 다른 사업장들은 최초 지하수 허가량보다 줄어들었는데, 유독 중문관광단지 내 사업장들은 제주도가 모두 증명해주면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유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렸던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경우 설치코지 일대 포락지 1만2650㎡에 해양체험센터와 주차장 조성을 허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제주지역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288만9000원

전국 평균보다 90만원 적어 꿀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임금 수준 낮은 서비스업 많아”

제주지역 상용근로자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도 90만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0일 “2019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19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제주지역이 288만9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해 4월 기준 276만7000원에 비해 12만2000원(4.4%)이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76.4%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 월평균 임금은 378만원으로, 제주가 이 보다 89만1000원이나 적었다.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 월평균 실질임금도 273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 실질임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으로 419만6000원이었고, 이어 서울이 401만5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소규모 서비스업인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제주가 177.5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0.6시간(0.3%) 감소했다.

근로시간이 감소한 지역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했다. 전국 평균 근로시간은 181.8시간으로, 제주가 4.3시간 적었다.

제주지역 산업별 임금총액은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524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보험업 463만원, 정보통신업 390만8000원, 수도하수폐기물 344만3000원 순이었다.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사업임대서비스업으로 218만1000원이었고, 이어 부동산임대업 226만4000원, 기타개인서비스업 249만2000원, 건설업 253만원, 도소매업 254만8000원, 숙박음식점 264만1000원 등이었

다.

제주지역은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 건설업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제조업과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이 적었다.

또한 300인 미만 업종 비중이 전국에 비해 10.7%p가 많은 반면 300인 이상은 10.7%p 적게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업체 규모가 상당히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병 기자

kbg91@jejunews.com

알림

2019 제주시조백일장 작품모집

제주시조시인협회와 제주신문은 우리고유의 민족시이자 전통문학인 시조문학을 널리 선양하고, 시조 창작을 통한 문예활동 및 시조발전에 기여하며, 시조의 생활화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2019 제주시조백일장”** 작품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응모대상

응모마감

응모편수

응모요령

접수처

입상작 발표

시상내용

일반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장원 1명 차상 1명 차하 1명	· 장원 각 1명(교육감상 및 상품) · 차하 각 1명(상장 및 상품)	· 차상 각 2명(상장 및 상품) · 지도교사상 각 1명(교육감상) ※부상은 주최측에서 제공	

(※일반부 장원 시상금은 일백만원이며, 시상내용은 작품응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의: 제주시조시인협회(010-2687-6571 / 010-2693-5142)
제주新보 전략사업본부(740-6412) · 문화부(740-6339)

| 주최 | 제주시조시인협회 | 제주新보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수두룩…4면/ (기획)김찬흠 선생의 제주인물 대하실록…12면

제 11 회

제주물 세계포럼

The 11th Jeju Water World Forum

2019. 10. 10~11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화산섬의 지하수 보전과 활용

2019. 10. 10 THU Day 1

기획식
 기조강연 [JPDC 취수원관리와 사회적 가치실현]
 주제발표 [수자원 가치 창출과 사회 공헌]

- 한국의 자연기원 좋은물 발굴 및 가치고도화 연구
- 하와이 주민들의 물보호 : 과거와 오늘
- JPDC - 유네스코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2019. 10. 11 FRI Day 2

주제발표 [글로벌 수자원 보전 · 관리 동향]

- 에비앙의 취수원관리와 연구활동
- 하와이주의 수문지질과 지하수 고도화 연구동향
- 제주도 물수지분석 개선방안 제안
- 하와이주의 물공급 시스템